

최형우가 돌아왔다



최형우

테스트 통과 ... 몸 상태 좋아 오늘 NC전 출전 이정훈 2군으로 내려가 한 단계 도약의 시간



복귀했다.

대신 부침의 6월을 보낸 이정훈이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최형우가 돌아왔다. 테스트 통과했고, 도루를 할지 모르겠지만 몸도 괜찮다고 한다(웃음). 오늘부터 준비가 됐다"고 최형우의 복귀 소식을 전했다.

이정훈은 퓨처스리그에서 재조정 시간을 갖는다. 타격을 조율하고, 본격적으로 1루수 연습도 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1루수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루에서 움직임이 괜찮아 보이지만 세밀한 부분에서는 노력할 부분이 있다"며 "(2군에서) 지명타자와 1루수로 출장을 시킬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정훈은 최형우가 망막이상으로 빠졌던 지난 5월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다.

5월 한 달 0.364의 타율로 리그 전체 6위에 이름을 올렸고, 사사구 13개도 얻어내면서 0.468의 출루율로 전체 9위를 기록했다. 또 2개의 홈런과 함께 장타율 10위(0.515)도 장식했다.

하지만 6월 상황이 달라졌다. 타격 페이스가 떨어졌고, 상대의 분석에 따른 집중 견제로 타율이 떨어졌다.

6월 17경기에 나와 57타수 7안타로 0.123의 타율에 그쳤고,

21차례 삼진으로도 물러났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에 29일 '특별과외'에 나섰다.

윌리엄스 감독은 "대부분 타자가 공통적으로 파곤해지고 지치면 힘들어지고 페이스가 떨어지는 과정을 겪는다"며 "볼을 쫓아가는 급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이 올 때 하체를 잡아주고 있어야 한다. 공을 끝까지 잡아두고 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형우의 복귀와 함께 이정훈을 내려보내면서 '1루수'라는 숙제를 부여했다.

이정훈 개인에게도 그렇고 팀 입장에서 그의 화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넓히기 위한 방안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그를 라인업에 넣고 싶은 건 당연하다. 지금은 1루 포지션에 대해 배우게 할 계획이다. 다양한 포지션 옵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정훈에게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과정이다"고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커의 몸 상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타커는 29일 롯데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를 통해 4타석을 소화했다. 안타 없이 삼진 하나만 기록했던 타커는 30일에도 지명타자로 3타석에 나섰다. 안타 없이 볼넷 하나를 기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커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첫 경기 뒤고 약간 허리 통증이 있었다"며 "타커가 하던 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주에 복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NC와의 시즌 7차전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에이스' 엄원상 도쿄올림픽 간다 '와일드 카드' 권창훈·황의조·김민재 선발

김학범호, 이강인 등 18명 확정

광주FC의 '에이스' 엄원상이 도쿄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엄원상은 지난 30일 발표된 2020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 최종 명단 18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이뤄진 태극전사 명단 발표에서 김학범 감독은 엄원상과 함께 송민규(포항), 이동준(울산), 권창훈(수원), 황의조(보르도)로 공격진을 구성했다.

김학범 감독은 '와일드 카드' 후보로 언급했던 손흥민(토트넘)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발하지 하지 않았다.

대신 만 24세를 넘긴 권창훈과 함께 황의조, 김민재(베이징)를 '와일드카드'로 선발했다. 이 중 권창훈만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김양재철고 출신의 전북 현대 수비수 이유현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단국대를 거쳐 2017년 전남드래곤즈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유현은 올 시즌 전북으로 이적해 6경기에 나와 1도움을 올렸다.

올림픽 대표팀은 내달 13일에 이어 16일 국내에서 평가전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한 뒤 17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광주FC 엄원상 '와일드카드'로 발탁된 황의조(왼쪽부터)와 권창훈, 김민재. /연합뉴스

올림픽 티켓을 거머쥔 엄원상은 "얼떨떨하다. 목표했던 올림픽 출전을 이뤄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본 대회에서 더 잘해야 한다. 기쁨은 오늘까지만 즐기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준비하겠다"며 "개인적인 기록보다는 무조건 팀이 먼저다. 팀이 목표로 하는 메달을 향해 가야 한다. 내가 조금이나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팬 여러분이 보내준 응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고맙다. 국가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고 팬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겠다"고 광주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광주FC 김호영 감독은 "정말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올림픽이란 무대는 뽀하기도 힘들고

나가서도 힘들 것이다. 광주를 대표해서,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대회인 만큼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여 국위선양을 했으면 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2020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 최종 명단(18명)

▲GK = 송병근(전북) 안준수(부산) ▲DF = 정태욱 김재우(이상 대구) 김진야(서울) 설영우(울산) 이유현(전북) 김민재(베이징) ▲MF = 김동현(강원) 원두재·이동경(이상 울산) 정승원(대구) 이강인(발렌시아) ▲FW = 엄원상(광주) 송민규(포항) 이동준(울산) 권창훈(수원) 황의조(보르도)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IT 기술 접목 ... K리그 유망주 건강하게 키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IT 기술을 접목해 K리그 유망주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

연맹은 지난 3월 스포츠 전문 IT 스타트업 큐엔아이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K리그 22개 유스팀(U15-U18) 선수와 지도자에게 신체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기관리 앱서비스인 '플코'를 통해 선수는 매일 자신의 컨디션과 부상이나 통증이 있을 경우 부상 부위, 정도, 양상, 시기 등을 직접 입력하고 누적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선수 스스로 입력한 기록을 바탕으로 그날의 준비도와 피로도가 자동으로 분석, 점수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선수는 자신의 몸상태에 맞춰 운동량을 구성해 훈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도자에게는 선수들이 입력한 데이터와 분석 점수가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팀 평균 컨디션, 평균 운동부하량, 잦은 부상과 통증 부위 등을 분석한 수치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에 맞춰 훈련 및 운동량을 구성할 수 있다.

지난 5월 대한축구협회장배 우승을 지휘한 전남 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 김현수 감독은 "플코"를 우승 전력 중 하나로 꼽았다.

김현수 감독은 "대회 전부터 선수들의 컨디션, 피로도, 통증이나 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었고 첫 경기 전까지 운동량과 강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대회 중에는 선수들이 미세한 통증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선수, 트레이너, 코칭스태프와 소통해 어떠한 회복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 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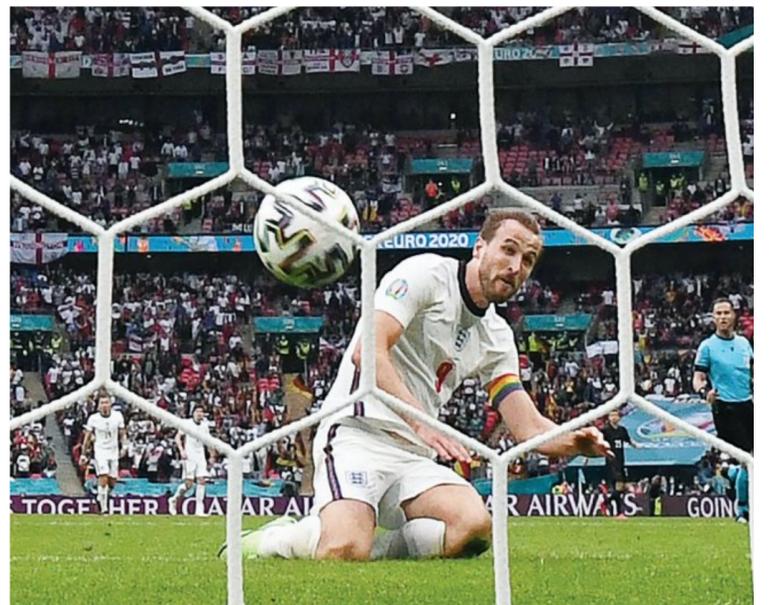
또 "모든 대회가 그렇듯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한

데 첫 경기를 준비하는 한 주 동안 팀 훈련 이외에도 선수 개인마다 상태를 체크할 수 있었던 부분 또한 좋았다"며 "앞으로도 훈련을 준비할 때 운동량과 강도를 계획하고 조절하고, 훈련 전에 통증이 있는 선수들을 체크해 그 선수들을 훈련 시에 어떻게 참여시킬지에 대해서도 사용할 것이다. 훈련 이후에는 피로도 등을 모니터링 해서 개인마다 컨디션을 조절하는데에도 사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앞으로 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훈련 시간, 장소, 내용, 기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하고 핏투게터 EPTS(웨어러블 전자피로 측정 트래킹 시스템) 데이터 등과 연동해 선수의 훈련 중 퍼포먼스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앱 사용 전후의 선수 부상 발생 빈도, 체력 및 기술 향상 등 효과를 분석하는 등 IT 기술을 통해 건강관 K리그 미래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0일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16강 잉글랜드 대 독일의 경기에서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28)이 득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독일 꺾고 유로 8강

세브첸코 감독의 우크라이나 연장서 스웨덴 꺾고 8강 합류

'축구 중가' 잉글랜드가 메이저 대회(유로·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얌전한 지긋지긋한 '독일 징크스'를 55년 만에 끊어내고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8강에 합류했다.

잉글랜드는 지난 30일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전차군단' 독일과 유로 2020 16강전에서 해리 케인과 라힘 스틸링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완승했다.

잉글랜드가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에서 독일을 꺾은 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전 끝에 4-2로 이긴 이후 무려 55년 만이다.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전까지 '글린 시트'를 달성하며 8강에 진출한 잉글랜드는 이날 연장 혈투 끝에 스웨덴을 2-1로 물리친 우크라이나와 오는 오는 4일 오전 4시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4강 진출을 놓고 대결한다.

반면 조별리그 '죽음의 F조'에서 생존해 16강에 진출한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은 모두 16강에서 탈락해 'F조의 저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유로 2020을 통해 잉글랜드 대표팀의 '해결사'

로 떠오른 스틸링과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케인의 연속포가 '전차군단'을 무너뜨렸다.

후반 30분 스틸링이 지루한 '영의 공방'을 깬다. 조별리그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로는 유일하게 골 맛(2골)을 봤던 스틸링은 16강전 결승골로 자신의 이번 대회 3호 골을 작성했다.

후반 41분에는 케인이 그릴리시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4경기 만에 터진 케인의 첫 득점이자 유로 대회 1호 골이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행던 파크에서 열린 또 다른 16강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스웨덴을 2-1로 물리치고 역대 첫 8강 진출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반 27분 올렉산드르 진체코의 선제골로 앞서간 우크라이나는 전반 43분 스웨덴의 에밀 포르스베리에겐 중거리포로 동점 골을 내주며 1-1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에도 서로 득점에 실패한 두 팀은 결국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연장 후반 추가시간인 121분 아르템 도브르키가 골 지역 정면에서 왼쪽 측면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헤딩 극장골'로 만들면서 역대 첫 8강 진출의 역사를 썼다.

/연합뉴스